

한라시론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제2공항 예정지 내 용암동굴 분포 검증 필요하다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경청회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경청회 과정에서 찬·반을 중심으로 여러 의견이 제출됐고, 경청회 밖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중에서 제주도가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 있다. 경청회를 포함해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제주도가 명확한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 역시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검토하고, 의문 사

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추가 설명을 요구와 함께 필요한 경우 직접 검증에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최근 시민사회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제2공항 예정지 내 지반조사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은 필요해 보인다. 이는 공항의 입지 적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획이 진전되기 전에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가 이행돼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안)의 지반조사 과정에서 활주로 예정지 내 시추조사 결과 화산체에서 흘러온 용암류 암반층 중간에 2m 전후에서 5m, 9.6m에 이르는 클링커층이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 클링커층은 제주도와 같은 화산지대에 분포하는 독특한 지층 구조로 용암이 분출해 굳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클링커(용암 표면이 영기

어 굳으면서 덩어리로 된 것)가 암반층 하부에 퇴적된 지층을 의미한다.

문제는 제2공항 예정지는 지질 특성상 빌레용암 지대로 암반층 사이에 수십 센티미터 정도의 클링커층이 형성될 수는 있지만, 국토부의 시추조사 결과처럼 수십 미터에 이르는 두꺼운 클링커층이 형성되는 것은 화산 지질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주장하는 수십 미터의 클링커층은 암반층 사이에 비어 있는 공간 즉, 용암동굴일 가능성이 있다. 빌레용암 지대가 형성돼 있는 제2공항 예정지 일대는 천연기념물 수산굴을 포함한 다수의 용암동굴이 분포하고 있다.

실령, 용암동굴이 아니라 국토부의 주장처럼 제2공항 내 암반층 사이에 실제로 두꺼운 클링커층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문제가 크다. 클링커층은 송이 층과

비슷한 형태로 많은 양의 빗물을 빠르게 이동시켜 지하수 함양은 물론 수해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제2공항 공사로 이 일대가 불투수층으로 변하면 나타날 수 있는 역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사업 예정지의 지반 시추조사 시료를 포함한 세부 자료의 공개를 국토부에 요구해야 한다. 자료 검증을 통해 필요한 경우 예정지 내 시추조사를 직접 시행해 용암동굴의 분포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이외에 기본계획(안)의 공항 수요예측의 적정성, 승객들의 위험성 평가 축소·조작 등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안) 의견수렴 과정의 하나로 투명하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명확한 입장이 표명돼야 한다.

사설

집행부·의회, 소통으로 추경 타협점 찾아야

올해 첫 추경안을 놓고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는 올해 제주도 본예산보다 4128억 원 늘어난 7조476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하고 430억 원 삭감했다.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추경 편성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다.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사업도 상당수 포함돼 공약이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의 예산갈등은 예견됐던 일이다. 도의회가 지난 회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도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문제가 갈등의 시초다. 도의회가 의결한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재차 보조금심의의 권한과 기능을 훼손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또 송악산 사유지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사 보류되자 제주도가

유감을 표명한 것은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도의회 예결위도 유감 표명으로 맞서면서 양측의 대립구도가 심화하고 있다. 게다가 도의원들이 주민 민원에 의해 편성을 요구한 사업 중 일부가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도 갈등의 한 요인이다. 제주도와 도의회의 갈등은 소통부재가 원인이다. 집행부는 추경안 심사를 앞둔 각 상임위 위원들에게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알მა 설명하고 설득시켰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어려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추경이라면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소통과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잘못이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서민경제는 그야말로 파탄이다. 추경이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양측은 소통안이 심사 보류되자 제주도가

편집국 25시

오영훈 지사의 '벚꽃 공약'



김지은 뉴미디어부 차장 jieun@ihalla.com

“왕벚나무 원산지인 제주의 다양한 생물 주권을 지켜 나가겠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방선거를 치르던 작년 4월 발표한 공약 자료의 한 구절이다. 국립수목원이 ‘왕벚나무’ 국명을 자생식물이 아닌 재배 식물에 붙이며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제주의 주요 자산인 생물주권을 포기하는 처사와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는 7월이면 오영훈 지사가 취임한 지 만 1년이 넘지만, ‘벚꽃 공약’의 후속 행보는 보이지 않는다.

‘벚꽃 논쟁’은 올해도 이어졌다. 제주 자생 왕벚나무와 달리 그 기

원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재배 왕벚을 두고 ‘일본산’이니 배어 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런데도 왕벚나무 자생지인 제주에서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왕벚 논쟁’에서 제주도는 여전히 뒤로 물러서 있다.

재배 왕벚의 기원은 아직 여러 ‘학설’이 있을 뿐 ‘일본산’ 또는 ‘일본 왕벚’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018년 ‘제주 왕벚나무와 일본 왕벚나무는 서로 다른 식물’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뉘던 국립수목원이 올해 후속 연구에 들어가는 것은 당시 발표의 문제를 인정하는 결과다.

그런데도 최근 도내에 심어진 왕벚나무 대부분이 ‘일본산’이라는 언론 보도에 제주도정이 화들짝 놀랐다는 얘기가 들린다. 대책 마련 지시가 내려졌다는 분위기도 전해진다. 이를 두고 아직도 문제의 핵심을 못 읽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이런데도 왕벚나무의 생물주권을 지킬 수 있을까.

뉴스-in

공무직 가족 동반 선진지 견학 ‘눈길’

도, 가정의 달 맞아 추진

시민 건강·힐링 아카데미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공무직 가족 동반 선진지 견학을 추진해 눈길.

이번 선진지 견학에는 제주도 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직 근로자 14명과 가족 등 총 28명이 참여하는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순천만 습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오동도 및 여수 향일암 등을 탐방할 예정이다.

소장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선진지 견학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쌓인 피로감을 해소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공무직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고대라고지

○...서귀포보건소가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 건강의식 개선을 위해 전문의 견학을 추진해 눈길.

17일 보건소에 따르면 강연자는 ‘국민사위 남서방’으로 알려진 남재현 프랜차이즈내과의원 원장으로 ‘즐겁고 건강하게, 100세 시대 건강관리’를 주제로 성인 병과 당뇨·비만 등 함께 다가가는 의학 정보와 건강생활 실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참여 인원은 5월 22-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200명으로 한정한다”며 “건강 관련 강연과 오페라공연을 접목해 참가자의 흥미를 배가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금타자

해수욕장 조기·야간 개장 안전이 최우선

4년 만에 제주지역 해수욕장 조기·야간 개장이 검토되면서 의견이 분분하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해수욕장 주변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반면 구조기관들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 시, 서귀포시 등 행정기관을 포함 해양경찰청과 소방안전본부, 경찰청, 자치경찰 등 구조·치안 기관 회의에서 도내 해수욕장에 대한 조기·야간 개장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는 등 방역 조치 완화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해수욕장 조기 및 야간 개장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고려하는 올해 해수욕장 개장은 지난해보다 열흘

이른 6월 20일쯤이며, 개장 시간은 3시간 연장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문제는 조기 및 야간 개장 검토와 관련 안전상의 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충돌한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통상 7-8월 두 달간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사고에 대비해 왔다. 철저한 대비가 있어도 매해 물놀이 사고가 있었던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름 특수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기에 해수욕장 문을 열고, 야간에도 운영돼야 한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상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안전 확보 없는 해수욕장 운영은 반대다. 지역경제도 살리고,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개장 기간과 시간 결정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
신기사업장 제7조 제9항 제5호 및 신기사업장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미소고성태양광발전소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애월읍 고성리 33(총8,965㎡ 중8,859㎡)
제주특별자치도 애월읍 고성리 산56(총8,727㎡ 중650㎡)
- 면적 : 9,509㎡
2.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소별 설비용량
발전소명 설비용량 비고
미소고성 999.58kw
합계 999.58kw
* 중공 시 모듈용량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시행계획일 : 2024년 1월
* 환경 선로 연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운영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0년간
3. 발전사업허가 신청자
김한웅 (연락처 : 064-713-6405)
4.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의견제출기간 : 2023년 5월 25일까지
- 의견제출방법 : 서면작성하여 E-MAIL (mrsps88@naver.com) 또는 FAX (064)713-6406 제출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상속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상 ☎010-7305-7819 제주도백이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학은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총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북비 : 50,000원
전화 010-7301-7737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6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양고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756-2833

택지, 상가 긴급매각
1) 성산포 500평 현재 70% 공사중 해안도로접
2) 송당리 1,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750,000원) 관광농원 임구, 송당리 마을, 2차선 접합
3) 종달리 6,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1,600,000원) 우도와 일출봉사이 바닷가
4) 시흥리 5,000평 (분할 가능) 잡종지, 임주도로 접합
5) 성산포 12,000평(분할 가능) 해안도로 접합
010-4820-4823 (부동산중개사 아남)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강정동 카페 및 펜션 토지 매각
1 강정 해안도로 접 607평 (카페 A급 토지)
2 강정동 주택지 373평
3 강정 해안도로 뒤 370평 (건축 높이 17m가능)
4 서귀포 이마트 근접 180평 (비다조망 건축가능)
5 월명포구 도로 근접 590평 (상가 및 펜션 건축가능)
6 호군동 일주도로 위 범섬 조망 180평 (주택 건축가능)
7 고근산 뒤 5,000평 조경 식재 (별장 건축가능)
* 부동산중개사 아남